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



1만 5,906명. 이는 2011년도 우리나라 자살자의 숫자다. 하루에 43.6명, 33분에 1명 꼴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9년째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1위이고 세계적으로도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은 감소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91년 10만 명당 7.3명이었던 자살률이 2001년에는 14.4명, 2011년에는 31.7명으로 급증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자살의 심각성을 해소해 보고자 국내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전통 철학의 관점에서 자살을 이해하고, 이를 언론보도에 적용하려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

공개 강연회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 김성기 교수(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백종현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각각 불교철학, 유교철학, 서양철학(인격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살에 대해 강연했다.



권성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언론은 자살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개인의 내적 감정의 동요나 정신병리학적 측면으로만 분석하여 자살의 원인에 대한 철학적,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심포지엄에서는 자살에 대한 전통철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자살이라는 문제점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고 이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볼 뿐만 아니라 자살을 보도하는 언론보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제1강연 불교철학에서의 자살에 관하여

한자경 교수는 “우리사회에 자살이 급증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생명의 절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무명(無明) 때문이다”면서, “불교의 고락관(苦樂觀) 중, ‘고락의 상대성’에 비추어 인생에서 고락은 한 짝이므로 인간의 삶에서 즐거움뿐 아니라 고통 역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인 이상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택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람들이 왜 죽지 않고 삶을 택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



한자경 교수

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살 가능자”라면서, “우리는 표층 현상(물리적 대상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심층에 집중하여 생명이 왜 존귀할 수밖에 없는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자살예방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강연 유교철학에서 보는 자살의 문제



김성기 교수

김성기 교수는 “유교의 전통사상은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인데, 최근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장애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한 사연과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현대 한국사회는 유교의 생사관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살과 죽음은 시대의 부조리, 역사성과 맞물려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의 나약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자살현상을 사회현상의 종합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처방하여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제3강연 인격주의 윤리에서 본 자살

백종현 교수는 “칸트는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고 하였다”면서,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는 자살은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이 모두 인격을 얻는 윤리적 시민사회를 건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인격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는 최고의 윤리적 선이 성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현 교수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권성 위원장은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무명(無明)을 벗어난 명(明)의 세계,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와 같은 치열한 선비정신, 윤리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다 같이 보이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언론계, 학계, 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일반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